

‘지장보살’ 화두와 다름 없어

심이 날 수 없었다.

1999년 2월 지장재일, 정안 스님은 1969년 관음·지장정근을 시작한 이래 1만일정진을 회향했다. 그러나 정안 스님은 회향일 곧바로 쉬지 않고 그날로 다시 지장기도를 시작했다. 41년 가운데 30년간 지장정근을 하며 스님은 내세에도 지장보살의 원을 실천하겠다는 발원을 했다. <금강경>을 만들어서 광덕 스님께 점검 받으러 서울에 올라 갔을 때, 정안 스님은 광덕 스님에게 당신의 원력을 숨김 없이 밝혔다.

“지장정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해 지장보살의 원력과 보현보살의 보현행원을 세세생생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광덕 스님이 정안 스님의 어깨를 잡아 힘차게 흔들어 당부했다.

“꼭 너는 보현행원을 하거라! 보현행원이다!”

이렇게 광덕 스님이 힘과 용기를 주자, 그때부터 정안 스님이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할 때 마다 저절로 보현행원과 관련한 법문이 쏟아져 나왔다. 오랜 관음·지장 염불로 득력(得力)한 정안 스님은 어느 경전을 보거나 고승의 법문 테이프를 들어도 그대로 이해가 되었다. 게다가 ‘바를 정(正)자, 편안한 안(安)자란 법명 그대로 안심(安心)을 얻었기에 탐욕과 애욕, 성냄, 어리석음이 저절로 사라졌다고 한다.

2011년 음력 2월 지장재일이면 정안 스님이 염불정진을 한 지 42년째 되는 해다. 같은 도량에서 해제 없이 결제를 계속해 온 수행자는 거의 없다. 특별하고도 간절한 원(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매일 8시간 꼬박 선택로 쉬없이 이어온 사분정근을 하면서 어찌 번뇌가 없었겠는가.

“처음엔 번뇌가 말도 못했지요. 중간에 너무 앓을 쓰다가 상기(上氣)가 들어 혈압이 높아져서 3년 정도는 힘들 때마다 앉아서 염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꼭 해나간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세월이 장구하다는 생각은 안들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입재할 때랑 마음가짐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세월동안 한결같이 간절한 염불정진을 한다는 것이 약삭 빠른 현대인들에게 어찌 가능한 일이었는가. 몇 년은 고사하고 몇 달, 며칠 정진을 해보고 안되면 금세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이러한 말법(末法) 시대에 정안 스님의 웅맹정진은 더욱 귀한 수행의 전범이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희유(稀有)한 일기에 일반인이 보기에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지장경>에 나오는 촘부다라니는 밖으로 지은 업을 녹인다고 한다. 모성을 상징하는 관세음보살의 다라니와 부성을 상징하는 지장보살의 다라니가 안팎으로 업을 녹이고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게 한다. 그리고 해탈경인 <금강경>은 최종적으로 공도리를 깨닫게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화두 삼아 간절히 염불해 보세요. 매순간이 한결같이 이어지면 동정일여가 이어지고 이것이 더욱 깊어져 주옥 이어지면 오매일여, 속면일여가 됩니다. 염불정근도 열심히 하게 되면 참선의 화두와 마찬가지로 됩니다.”

화두이든 염불이든 일념(一念)이 상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장보살’ 염불을 통해 삼매에 들면 과연 어떤 상태 일까?

“지장정근을 통해 일념상응이 되면 염불하는 자가 지장보살이 됩니까?”

“내가 지장보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상(相)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직 ‘지장보살’ 한 생각만 찾아야 합니다.”

“어떤 스님들은 염불로 일념이 되면 ‘염불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쟁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불하는 놈이 무엇인가” 하고 찾으면, 염불하는 놈과 찾는 놈이 두 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지장보살’ 한 생각만 좇아나가십시오. 그렇게 ‘지장보살’ 하나로 푹푹 문지르면 화두 드는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안 스님은 이러한 일념삼매에 들어 체·상·용(體)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완전한 깨침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체(體)는 입만 열어도 어긋나고 마는 진리의 본체입니다. 상(相)은 일체 현상계가 나의 몸이어서, 이 세상 그대로가 실상(實相)인 세계입니다. 용(用)은 일체와 하나인 자리에서 생각을 내고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안 스님의 법문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철저한 체원에서 우리나라의 것이기에 진실함이 배어있다. 평생 남의 돈만 세다가 퇴직하는 은행원처럼, 한 평생 남의 살림살이만 저울질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수행자가 허다하다. ‘부처님 아들’이란 뜻의 ‘불자(佛子)’ 타이틀을 가진 이라면 지금 당장 염불이나 주력, 화두를 쟁기면서 내 살림살이 한번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하산하는 길에 한없이 자비롭고 순박한 정안 스님의 미소를 떠올리며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을 흥겹게 불러본다.

“다나라 옴 아리다라 사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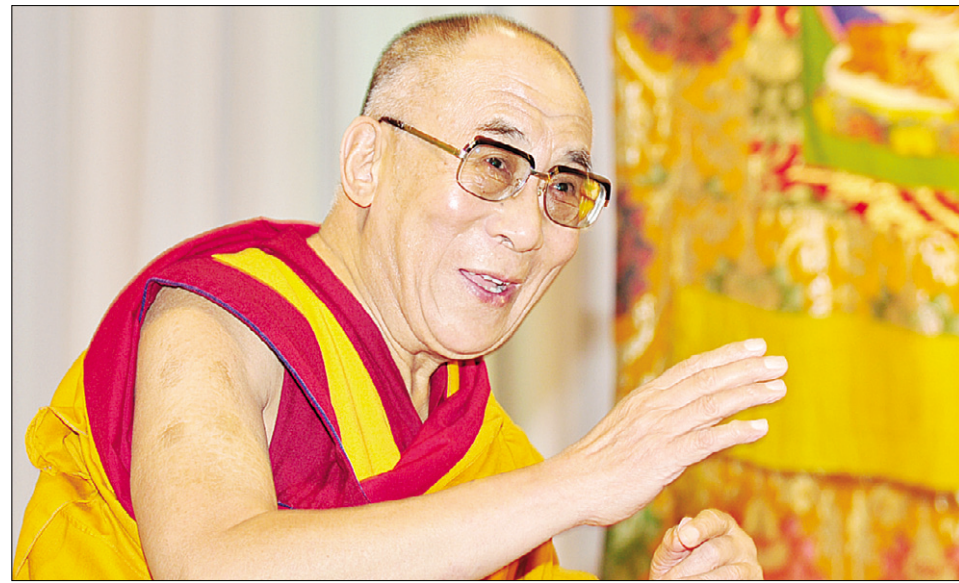
글·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달라이 라마 ‘행복’을 말하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텐진 가초)가 일본 여행 마지막 일정을 요코하마에서 가졌다. 6월 20일 나가노를 시작으로 22일 카나자와를 거쳐 26일 해양도시 요코하마 피시피코전시홀(PICIFICO Exhibition Hall)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여 명의 청중이 운집했다. 한국인 불자 600여 명도 동참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날 법문을 통해 “보리심을 일으켜 자비행을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법문 요지>

거친 연기와 미세한 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집제입니다. 멸제는 결과이고 그 원인은 도입입니다. 사성제는 윤회의 방법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인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의 진리를 설한 이후에도 고통의 본성을 파헤쳐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명쾌히 밝힙니다.

거친 연기는 사성제에서 설한 인과연기이며 반야경에서 미세한 연기를 설명합니다. 붓다께서 사제



“보리심 일으켜 자비행 하세요”

붓다의 말씀 속에서 자비 선정 진리에 대한 무수히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기의 진리로 관통합니다. 윤회하는 수많은 중생이 사는 세간의 중생은 사실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과 행복을 일으키는 원인을 논합니다. 중생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스러우며 행복을 원하면서도 그 행복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윤회하는 모든 중생은 모두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생기는 그 원인을 명확히 알고 그 뿌리를 뽑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연기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조건에 의지하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청정한 지혜를 가진 이는 붓다께서 보신 연기의 진리를 통해 모든 무지를 밝힙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의 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모든 사물은 인연을 근거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과 연을 통해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력으로 성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연을 의지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을 원하지만 자신의 근본 원인을 알 때 모든 영긴 실타래를 풀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어서도

에 대해 설하실 때 거친 연기를 설하시면서 인과의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야경에서는 미세한 연기를 설하시면서 존재의 자성을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의 연기를 신중히 생각하세요. 고통의 원인이 생하면 타인의 불행을 만듭니다. 그 때 생기는 자성이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역으로 행복 또한 가능합니다. 보리심을 일으켜 자비행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연기의 이치로서 가능합니다. 인연의 이치에서 핵심이 보리심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오온의 자성이 없음을 밝히는 바와 같이 자립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중생의 집착심과 분노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실제에 집착하는 것에 비롯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일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감소와 내적인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물질적 풍요가 내적 평화와 직접적으로 완벽히 해결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21세기는 10년 밖에 흐르지 않았습니. 아직 90여년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강원도 : 019-396-1110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